



사진제공 · 김세진

## 목회

영혼을 낚는 어부들

## 일본

# 이웃 나라에 전하는 예수 복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복음의 실천을 우리의 이웃 나라인 일본을 향해 펼치는 일본 선교. 오랜 역사적, 지리적 영긴 실타래를 예수 사랑의 복음으로 풀어내는 일본 선교사들이 직면한 어려움은 무엇인가. 십 년째 그 척박하고 황량한 일본 땅을 품고 있는 나의 선교 사역을 이야기한다.



김세진 선교사

gospel-house.net  
kimsejin@hotmail.com

AMJ일본아가페선교회 파송 선교사이며,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다.

**복음**화가 1%도 되지 않은 선진국이면서 미전도 국가.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바로, 일본이다.

일본에서 더 일본 같은 지역, 일본사람들도 대하여 어려운 사람이 자존심 강한 교토사람이라고 한다.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년이면 벌써 선교사로 온 지 10년째가 된다. 10년은 되어야 그제야 일본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한다. 함께 사역하고 있는 선배 선교사들도 보통은 20년이 넘는 이들이 많기에 필자는 명함도 못 내민다. 왜냐하면 이 척박하고 황량한 일본 땅에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만 해도 대단하기 때문이다.

## 일본을 향한 마음을 품다

선교는 선교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청소년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일본 선교의 비전을 품고 오늘날 일본 선교사가 되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선교사가 되었지만, 우여곡절도 많았다. 뒤돌아보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훈련이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학부생 때 당시 JMF(일본선교회)를 만나 간사, 부총무, 총무를 거쳐 2014년 봄에 일본 교토로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되었다. 현재는 선교회의 여러 사정에 의해 AMJ(일본아가페선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대학생 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수 출신이신 조하문 목사를 만나게 되어 함께 찬양 사역을 하게 되었다. 그 덕분에 찬양선교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조 목사를 통해 사랑의빛공동체교회로부터 선교사 파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본 선교사로 교토에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후쿠오카만 30번 넘게 단기선교를 진행했었기에, 훗날 하나님께서는 필자를 후쿠오카로 선교 보내시려나 생각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

일본선교회에서 총무로 재직했던 때, 선교사 훈련원에 강사로 온 목사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전달받았다. 그것은 교토에 있는 동지사대학(Doshisha University)의 일본어학당 같은 코스에서 공부하며 학생 전도도 한다면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당시 부끄럽게도 일본 선교를 한다면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했다. 웬지 달콤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필자는 이미 당시 목동제 일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약 5년간 사역하고 나면 교회에서 파송해 주겠노라는 담임목사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그 제안에 필자는 선뜻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해 버렸다.

약속했으니 일단 매일 새벽마다 기도는 하는데, 마음이 썩 내키지는 않았다. 지금 당장 교토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몇 년 뒤에 후쿠오카로 가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했다. 현실적으로는 후쿠오카가 더 안정적이고 맞는 것 같아서 후쿠오카를 두고 기도했으나, 교토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더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다. 마침 사사키의 기도온이 부름받는 구절에서 하나님께 기적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장면을 묵상하고 있었다. 지금 필자의 상황과 비슷한 마음이 들어 하나님께 기적적인 응답을 구했다. 당시, 아내가 일본 선교를 위해 한국어 강사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었다. 단기간에 공부하면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는 매력적인 코스에

## 선교는 선교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일본에는 전국적으로 약 10만 개의 신사가 있으며, 불교 사찰은 약 8만 개가 있다. 불교 사찰이 한국보다 20배나 더 많은 현실이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것만이 아니다. 매년 새해에 불교와 신사에 일본인들 2백50만 명이나 참배하러 간다. 그러니 악한 영이 견고한 진을 칠 수밖에 없다.

김세진 선교사 | 월간목회 2023년 10월호



사진제공 · 김세진

신청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도 자격증을 따기 어려운 것인지 몰랐다. 이미 시작한 공부를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어쨌게든 마지막까지 해 보기로 했다. 그때 기도 중 그것이 떠올라 아내가 시험에 합격한다면 필자도 기도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겠다고 기도하게 된 것이다. 이에 하나님께 일사천리로 응답받고 현재 일본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 찬양 사역과 라디오 전도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

처음 일본 선교사로 파송받을 당시 기도하면서 세운 계획이 있었다. 1년부터 5년간, 그리고 5년 단위로 20년간의 계획이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우며, 어찌 보면 너무 욕심을 부린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종착지는 일본 전국구의 네트워크로 다양한 사역들을 펼칠 계획이었다. 일본 현지인 대상 선교로서 현지인처럼 일본어를 쓰지 않으면 불가능할 사역이었으며, 찬양 선



사진제공 · 김세진

교와 다양한 네트워크 사역 등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현재 10년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0년 계획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다.

처음 일본 선교를 나오기 전에 CTS 방송국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게 되어 그곳 피디랑 식사하며 이야기 나누던 중, 일본에서 생생한 선교 현장을 전달하는 비전을 품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으로 오자마자 일본 선교에 대해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 일은 현재 CTS의 플랫폼을 지원받아 일본어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라디오 방송인 'Radio Joy DSM Japan'을 3년 전에 개국한 것의 계기가 되었다.

어떤 선교사는 본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을 때 언어 습득 이외에 할 일이 없어 시간이 많았다고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처음부터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동지사대학교 내에 있는 일문센터에서 2년간 일본어를 공부하였고, 그 연결점으로 동지사대학 신학대학원에서 현지 언어로 실천신학을 공부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 선교하면서 공부했던 기회를 통해 보다

폭넓은 시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문화 사역으로 다양한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 현재 현지 목회 선교는 하지 않고 있으나, 일본 현지 교회를 돕고, 문화 사역인 찬양 사역과 미디어 사역인 라디오 전도를 전담하여 사역하고 있다.

##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일본 열도를 마주하며

필자는 선교단체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름대로 일본 선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했었다. 그러나 선교 현지에 와서는 그것이 빙산의 일각이었음을 깨달았다. 40번 이상 단기선교를 진행했었으나 막상 선교 현장에 나아오니, 그동안 단기선교에서 보고 느꼈던 것 이상으로 엄청난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일본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국에 있었을 때 전혀 느끼지 못했던 악한 영과의 피 터지는 싸움이 있다. 일본에는 전국적으로 약 10만 개의 신사가 있으며, 불교 사찰은 약 8만 개가 있다. 불교 사찰



사진제공 · 김세진

이 한국보다 20배나 더 많은 현실이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것만이 아니다. 매년 새해에 불교와 신사에 일본인들 2백50만 명이나 참배하러 간다. 그러나 악한 영이 견고한 진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느 선배 선교사가 “일본에는 외로움의 영이 많이 역사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 실제로 일본의 대표적인 사회 문제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다. 관계가 무너지고, 사랑이 메말라 있다.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현상은 반드시 배후에 악한 영의 움직임이 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어도 속을 들여다보면 온통 멍들어 있고 상처투성이다.

이러한 것을 모르면 선교사들도 헛갈릴 때가 있다. 어느 선교사는 멋진 웨딩 채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부흥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단기선교에서 비전을 나누는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웬지 멋져 보이고 그럴듯해 보였다. 그러던 필자에게도 기회가 찾아왔다.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웨딩 채플에서 목회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교토에 유명하고 멋진 웨딩 채플의 사장이 일본인 크리스천이었다. 그는 매 주일 저녁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예배를 지켰다. 주일 저녁은 때로 비싼 값에 예식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이었다. 수십 년간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께 드렸다. 그 대가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예식장은 항상 흑자를 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부흥하지 못했다. 그러한 곳을 필자가 예배 담당 목사로 부임하게 된 것이다. 필자도 나름대로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목회했다. 그러나 단지 화려한 겉모습만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기에는 장벽이 너무 높았다. 일단 콘서트나 이벤트를 하면 어떻게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



기는 했으나, 예배까지 인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본인들에게는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약 2백50년간 옛날 ‘키리시탄’(옛날 ‘크리스천의 일본식 발음)을 핍박하던 것이 잔인하고 끔찍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DNA에 거부감이 심어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실제로 일본인들에게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들게 한 사건은 약 20년 전 일어났던 옴진리교 지하철 독가스 테러이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때부터 사회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종교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에서 서클 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중학생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더욱이 작년 벌어진, 통일교로 인해 배신감을 느낀 사람이 아베 전 총리를 살해했던 큰 사건 때문에 종교에 대해 더 조심스러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 문화와 언어로 인한 선교의 어려움

필자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 하나의 문화 충격이 있었다. 나름 헌신해서 선교사로 왔음에도, 온 지 얼마 안 된 선교사는 ‘선생님’ 소리조차도 듣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목사님’이라는 ‘~님’ 자가 들어가는 호칭으로 대접받아 왔다면, 일본에서는 그렇기는커녕 ‘센세(선생)라는 말도 듣기 어렵다. 필자도 처음 일본 교회에서 ‘김상(김 씨)이라 불렸다. 일본에서는 담임목사에만 ‘센세’라는 호칭이 붙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낮은 자세로 임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일본 선교는 어렵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사진제공 · 김세진

때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섬기러 오셨다. 교회든 선교든 인내하며 섬기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볼 수 없다.

또 다른 선교의 장애로서는 항상 부딪히는 언어의 장벽이다. 오랫동안 선교를 해 온 이들도 가장 선교의 걸림돌로 언어 문제를 꼽는다. 한국인 사이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잘되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서운한 일이 있듯이, 선교지에서는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본 현지에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한국인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종종 다툼이 있다. 이 역시 소통의 문제였다. 한국인 사이에서도 그러는데, 한국인 선교사와 일본인 목사들과의 사이는 어떠하겠는가.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바로바로 해결하지 않아 일본인 목사들 사이에서 한국인 선교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 선교 현장과 한국교회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길

선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영성, 겸손과 배움의 자세, 그리고 언어와 커뮤니케이션, 이러한 것이 뒷받침되었다면, 탁월한 실력과 지혜의 테크닉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 본인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느 분야에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지 최소한 알고 발굴하고 노력해야 한다.

최근에는 한류 열풍이 식지 않고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한류라는 무기로 젊은이들을 공략할 수 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문화 선교가 통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의 대중문화와 교회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

가를 더 연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하나님이 주체이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항상 느끼고 강조하는 것이지만,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이다.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단기선교를 준비하면서도 무엇보다 뜨겁게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최근에는 코로나19가 진정되어, 한국과 일본의 왕래가 잦아졌다. 그만큼 일본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교회도 많아지고 있다. 필자도 단기선교를 통해서 참가자가 변화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학생이든 어른이든 선교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된 필자 역시 한국교회가 선교를 함으로써 더욱 부흥하고 성장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한다. 한국교회가 잘되어야 선교도 마음껏 할 수 있다. 선교 현장과 한국교회가 서로 윈윈을 이루는 이상적인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기도하며, 왕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협력 선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선교에 비전을 둔 성도들을 중장기적으로 선교사로 훈련시키고 현지를 돕는 단기선교사로 파송해 주면 현지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자녀들을 유학시키러 보내는 경우에 선교사의 교회와 잘 연계하여 자녀들도 선교사적 마인드로 잘 성장시키고, 선교 현지에서도 큰 힘이 되는 것으로 좋은 선교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일본 현지에서 시행되는 선교 사역들을 살피고 필요를 채워주는 재정 지원과 기도 지원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선교는 무엇을 하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가 선교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㉞